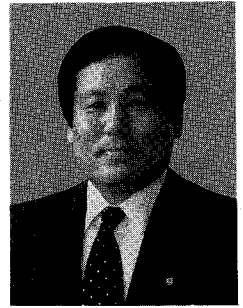


# 논 단

## 경제인과 경제윤리

(경제적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1. 경제법 개요	2) 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3) 경제백서
1) 의 의	3) 경제학 순리	4) 경제법칙
2) 연 혁	4) 경제학 신원리	5) 경제성원리와 경제주의
3) 학 설	5) 경제학 원리	6) 경제시계열
4) 타법역과의 관계	6) 경제학의 국민적체계	7) 경제외적 강제
5) 현행 경제입법	7) 경제문감	8) 경 제 재
2. 경제인과 경제윤리	5. 경제학과 관련된 학문	9) 경제조직
1) 경 제 인	1) 경제해부학	10) 경제지수
2) 경제윤리	2) 경제지리학	11) 경제체제
3. 경제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국민주의	3) 경제철학	12) 경제통계
1) 경제적 민주주의	4) 경제심리학	13) 경제통계법
2) 경제적 국민주의	5) 경제생리학	14) 경제투쟁
4. 경제학에 관한 서적	6. 경제관련 제문제	15) 경 제 표
1) 경 제 학	1) 경제결정론	16) 경제형법
	2) 경제계산론	17) 경제형태



대표이사 신 박 제  
필립스산업 코리아(주)

### 1. 경제법 개요

#### 1) 의 의

고도의 자본주의 경제에서 생기는 모순을 국민경제전체의 입장에서 조정하는 법이 경제법(經濟法: economic law)이며, 경제통제법 또는 통제경제법이라고도 하여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경제법이라는 명칭은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전쟁중

에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였던 독일은, 패전한 후에도 혼란한 경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이른바 사회화(社會化: Sozialisierung)의 사상에 입각한 많은 긴급입법이 행하여 졌는데, 이러한 일련의 법규를 통털어 경제법이라 부르게 되었다.

#### 2) 연 혁

자본주의 경제가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아담 스미스(A. Smith)

의 경제학에서 각자의 이기심에 바탕을 둔 경제행위를 중국적으로 공공의 복지로 이끈다고 한 예정조화적(豫定調和的)사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에 의한 자기조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 채 여러가지 모순이 생기게 됐다. 특히 중요한 것은 생산과잉으로 인한 불황이나 공황이다. 민법(民法)과 상법(商法)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시민질서는 경제의 자기조정

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먼저 사기업자(私企業者)들은 계약과 같은 시민법제도를 이용해 카르텔(Kartell), 트러스트(Trust) 및 콘체른(Konzern)등 자치적인 통제방법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통제는 부분적인 것이고 또 그 힘에도 한계가 있을 뿐더러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는 도리어 독점(獨占: monopoly)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유해한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1890년 미국의 반(反)트러스트법인 셔먼법(Sherman Act法)과 1823년 독일의 카르텔 포고령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치적 통제조직을 국가가 강제 카르텔과 같이 경제통제의 기구로서 이용하기도 한다. 통제의 필요성이 증대하여 감에 따라 국가가 여러가지 새로운 통제기구나 통제방식을 창제하고 있으므로 경제법의 내용은 점차로 풍부해진다. 다음으로 근대전(近代戰)은 경제력을 배경으로 하는 총력전이므로 두 차례의 세계대전중에는 각국이 모두 강력한 경제통제를 실시하였다. 이와같은 이른바 전시경제법도 결국에는 경제법의 발전을 촉구했다. 고도자본주의의 모순은 각국이 단독적 힘

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관세법의 경우처럼 각국의 경제법이 서로 대립하는 수도 있어서 전쟁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국제적인 조정이 절대로 필요하게 되어가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후, 세계경제의 조직화가 진행되고 아울러 그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경제법이라고 보아야 할 분야가 대두하고 있다.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그 예이다. 이들의 내용은 국제법적 규범인 경우도 있고 또 업자간의 자치적 규범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와같은 국제경제법이 각국의 경제법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러시아처럼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국가에서는 이상과 같은 의미의 경제법이 하등 문제가 되지 않는다.

### 3) 학 설

경제법의 의의(意義)내지 범위에 관한 문제는 특히 독일에서 활발히 논의되어 왔다. 경제법법학의 특정 분야가 아니라 경제성(經濟性: economism)이라고 하는 시대사조 내지 경제적 세계관에 불과하다는 헤더만(J. W. Hedemann)의 세계상설(世界相說), 노동법을 포함하는 널리 경제에 관

한 모든 법이라는 집성설(集成說)로부터 민법과 상법을 제외한 경제적 기업자에 관한 법으로서 노동법에 대립시키는 캐스켈(W. Kaskel)의 기업자법설(企業者法說), 조직화 경제, 즉 규제된 거래경제인 사경제(私經濟) 및 공동경제에 고유한 법이라는 골트슈미트(L. Goldschmidt)의 조직경제설(組織經濟說)등을 거쳐, 근래에 와서는 법의 기능면에서 착안하여 영리활동에 대해 국가가 규제하고 간섭하는 법을 경제법으로서 파악하려는 링크(G. Rink)의 기능설(機能說)이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는 조직경제설이 다수의 찬동을 받아왔으나 기능설이 점점 유력하여 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여러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전면적인 통제경제 내지 계획경제는 실시되지 않고, 개인적 창의를 인정하는 경쟁경제 질서를 기초로 한 즉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혼재(混在)된 이른바 혼합경제(混合經濟: mixed economy) 또는 이중구조경제(二重構造經濟: dual economy)의 형태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경제법도 이 정도의 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법은 적극적으로 경제상의 조직 또는 활동을 통제하고 지도 또는 형성하려고 하는 경제

통제법과 소극적으로 경쟁경제 질서를 유지하며 둔화하려고 하는 경제질서법으로 나누어진다.

#### 4) 타법역(他法域)과의 관계

경제법은 민법과 상법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법질서를 승인하고는 있지만, 이에 대하여 국민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조정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법이나 상법과 같은 사법(私法)과는 달라, 공공의 복지(公共福祉: public welfare)와 사회적 정의등의 공법적 원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 의미에서 양자는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며 이론상 경제법은 민법과 상법의 상위에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법은 공법 특히 행정법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법은 행정기관을 통하여, 또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실시되는 일이 많지만, 그 목적이 경제정책적인 점에서 공법이나 행정법과는 다른 것이다. 또 경제법은 노동법과 구별된다. 양자는 다 같이 시민법 질서에 대한 수정(修正)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그 규율의 목적이 각각 다르고, 대체로 전자는 경제정책에, 후자는 사회정책에 대응한다. 따라서 경제법이 노동자를 취급하는 경우에도, 그것은 생산력의 한 요소인 인적자원으로서이며, 노동법이 어디까지나 인간으로

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는 다르다.

#### 5) 현행 경제입법

우리나라는 서구 여러나라에 서와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 단계를 거친 고도의 독점적 자본주의(獨占的資本主義: monopoly capitalism)가 형성된 것은 아니지만 공공복리 내지 인간다운 생업의 보장을 위한 헌법의 이른바 경제조항에 의하여 경제법의 근거가 부여되고 있다. 현재의 경제법관계의 여러법령을 보면 부정경쟁방지법(不正競爭防止法: 1962)외에는 독점금지법(獨占禁止法) 또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등의 경제질서법적(經濟秩序法的)인 것보다 경제통제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 2. 경제인과 경제윤리

#### 1) 경제인

영리적 계산에 따라 행동하는 상상인(想像人)을 경제인(經濟人: economic man)이라 한다. 라틴어의 호모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의 번역어로 이것은 근대사회의 부르조아지(bourgeoisie)를 추상하여 얻은 인간 유형이다. 경제적 합리성이나 경제적 타산에만 따르는 인간을 말하나 현실에는 이러한 일면적인 인간

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처음으로 설정한 사람은 아담 스미스(A. Smith)이다. 그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친 영국을 중심으로 일어난 산업혁명(産業革命: the Industrial Revolution) 이전의 선량한 평균적기업가중에서 이러한 유형의 인간을 찾아내어 부르조아사회의 전형적인 인간상(人間像)으로 하여 이론구상상의 전제(前提), 즉 방법적 가설을 세웠다. 한편 그는 경제인이 갖는 교환욕(交換慾)이나 이기심(利己心)은 인간의 근원적인 성질이며, 자연으로 부터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여 이것을 자유로이 발휘하는 것이 사회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믿었다. 결국 경제인은 그의 경제적 자유주의 주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대 경제학에 이르러 리카도(D. Ricardo)는 경제인은 피가 흐르는 인간유형이 아니라 타산만을 위주로 하는 비정(非情)의 인간(Homo economicus ricardianus)이 되고, 한계효용학파(限界效用學派)에 이르면 전혀 인간유형이 되지 않고, 추상적이기주의자(利己主義者: egoist)라고 하는 방법적 가설에 지나지 않게 된다. 또한 스미스적(Smithsonian) 경제인에 관하여도 그것이 교육욕이나 이기심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시대에

처음으로 나타난 심리상태를 초역사적인 영원한 것이라 생각한 점에 대하여 비판되고 있다. 이것은 오늘날의 대중사회적 인간상이나 사회주의적 인간상과 비교해 보면 분명해진다. 더우기 미국에서 19세기 말엽부터 20세기에 걸쳐 발전한 제도학과(制度學派: Institutional school)는 인간행위의 동기에 대한 쾌락주의적 관찰이라고 이를 배격하고 있다.

## 2) 경제윤리

경제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경제도덕을 경제윤리(經濟倫理: economic ethics)라 한다. 인간이 사회를 형성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함에 있어서 구극적(究極的)으로 지켜야 할 도덕으로 그 사상은 경제형태, 조직, 계급의 구성등의 변천에 의하여 변모되어 왔다. 생산적 노동이 노예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상업이 한층 시민계급의 손에서 영위되던 고대(古代)에 있어서는 경제적 활동을 영리적 행위, 즉 식화술(殖貨術)이라 하여 재화(財貨)를 늘리는 일로 천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봉건시대에 사농공장(士農工商)이라 하여 선비·농부·공장(工匠)·상인 중 상인을 사회계급에서 제일 낮은 것으로 취급했다.

또 중세에 있어서는 종교가 세

속적 행복이나 쾌락등으로 대표되는 물질적 생활을 배척하고 금욕적이고 정신적 생활을 권장하였기 때문에 경제 또는 상업적 활동은 세속적 이라는 뜻에서 부정되었다. 그러나 근세 이후 자본주의의 발전에 의하여 경제활동에 대한 이 불명예스러운 관념은 불식(拂拭)되었으며 새로운 시민계급의 대두와 산업혁명에 의한 자본주의의 확립과 더불어 경제적 자유주의를 윤리적으로 긍정하는 공리주의(功利主義: utilitarianism)가 형성되었다. 이와 동시에 자본주의를 긍정하는 윤리학설과 함께 이를 비판하는 학설이 일어났으며, 민족 공동체의 이념에 입각한 국민경제를 수립하고자 한 독일역사파의 학자들은 유기체설(有機體設: organicism)에 의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비판하였고, 영국의 러스킨(J. Ruskin)이나 칼라일(T. Carlyle) 등은 자본주의의 배금사상(拜金思想: mammonism)을 맹렬히 공격했다. 마르크스(K. Marx)를 위시한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의 생산방식을 착취의 지배라고 배격했다. 그러나 그들이 자본주의의 폐해(弊害)를 대신해서 내놓은 프로레타리아트(the proletariat) 체제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유린될 위험성이 있다. 그리하여 개인의 주체적 자유없이는 인간행

위의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경제기구의 올바른 조정없이 는 개인의 주체적 자유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에서 슈페터(J. Schumpeter)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를 제창하였고, 독일의 철학자 야스페르스(K. Jaspers: 1883~1969)는 사회주의를 인정하면서도 전면적인 통제에는 반대하고 있고 인간의 근원적인 자유를 옹호하면서 경제와 윤리를 공히 다루고 있다.

## 3. 경제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국민주의

### 1) 경제적 민주주의

형식적인 정치적 민주주의만으로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결코 보장할 수 없으므로 최근의 자본주의에 있어서는 노동자가 공장위원회(工場委員會), 노동입법, 노종조합,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등을 통하여 자본가의 기업에 영향을 주며, 여기에 자본가와 같이 참가함으로써 자본주의의 평화적이며 산업적 개조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상이 바로 경제적 민주주의(經濟的 民主主義)이다. 이것은 보통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말로 쓰이며 사회민주주의와 표리(表裏)가 되는 개념이다. 제1차 세계대전후 독일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가인 카

우츠키(K. Kautsky : 1854~1938)의 초(超) 제국주의론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독일에서는 사회화 정책이 실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후 영국에서는 중요 산업국유화정책이 시행되어 산업의 국가통제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국민경제의 안전화가 목적으로 촉진되었다. 세계의 각국이 경제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시도하는 추세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헌법에 경제조항을 설치하고 토지개혁의 실시,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동협동조합법 등을 제정하여 이를 지향(指向)하고 있다.

## 2) 경제적 국민주의

국가의 통일·독립·발전을 지향하여 나아가는 경제적 이데올로기 및 운동이 경제적 국민주의(經濟的 國民主義)이다. 민족의식이나 국민의식이 그 원동력이 되며 이러한 국민주의가 단순한 문화적 단계로부터 정치의식과 행동으로까지 격상될 때 비로소 나타난다. 그것은 국민주의의 최초의 목표가 어디까지나 국내 내부의 정치적 통일과 다른 나라에 대한 정치적 독립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오늘날 국민주의가 집중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지역은 저개발성을 띄고 있는 아시아와 아프리카등의 전(前)식민지

국가이다. 경제적 이상과 같은 내용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의 각 민족이나 국가가 지나치게 이 경제적 국민주의에 함입(陷入)하게 되어 그 결과는 배타적인 양상을 중국에는 띠게 되고, 전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짙게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 4. 경제학에 관한 서적

### 1) 경제학(經濟學)

Traité d'Economie Politique

프랑스의 고전과 경제학자인 세이(J. B. Say : 1767~1832)의 저서이다. 스코트랜드의 경제학자 스미스(A. Smith : 1723~1790)의 학설에 경복(敬服)하여 이를 체계화하고 주해(註解)하여 보급하려 한 것으로 1803년에 간행되었다. 난해(難解)한 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의 소론(所論)을 쉽게 개작하여 이를 보급시킨 공적은 크지만 그러나 단순한 《국부론》 보급서(普及書)는 아니다.

### 2) 경제학(經濟學) 및 과세(課稅)의 원리(原理)

영국의 경제학자 리카도(D. Ricardo : 1772~1823)의 저서이다. 1817년 초판이 나왔고 1821년에 3판이 발간되었다. 분배를 생산물의 분배로 생각하므로 분배관계에 따라 여러계급 사이의 관계

를 포착하고 생산과 그 기초로서 자본축적이 분배에 의하여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분명히 밝힌 책이다. 내용은 제1장 가치론으로부터 시작되어 제6장에서는 가치·지대(地代)·가격·임금(賃金) 및 이윤등 경제학의 기본적 개념을 해명하였고, 제9장 이후는 학설 비판 및 개개의 구체적 문제를 규명하였다.

### 3) 경제학순리(經濟學純理)

The Theory of Political Economy

영국의 경제학자이며 논리학자인 제번즈(W. S. Jevons : 1835~1882)의 저서로, 1871년에 간행되었다. 정통학파의 객관적 가치론, 생산비용설에 반대하는 주관적 가치론인 이용설 즉 효용설(效用說)을 주장하였다. 경제학은 수량을 취급하기 때문에 수학적이 아니면 안된다고 하여 경제학에 미적분학(微積分學)을 응용하였다. 전 8장으로 되어 있다.

### 4) 경제학신원리(經濟學新原理) Nouveau Principes d' Economie Politique)

스위스의 역사학자이며 경제학자인 시스몽디(Sismondi : 1773~1842)의 저서로, 1819년 간행되었는데 〈인구와 관계된 부(富)에 대하여〉라는 부제가 붙어 있다. 고전경제학 비판자로서의

그의 대표적 저서로 정평이 나있다. 제1편 경제학의 대상과 그 기원, 제2편 부(富)의 형성과 증진, 제3편 토지의 부에 대하여, 제4편 상업적 부에 대하여, 제5편 화폐에 대하여, 제6편 조세에 대하여, 제7편 인구에 대하여로 구성되어 있다.

### 5) 경제학원리(經濟學原理)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스코틀랜드의 경제학자이며 철학자 밀(J. S. Mill: 1806~1873)의 저서로, 1848년 초판되었다. 사회철학으로서의功利主義(功利主義: utilitarianism)와 실증주의(實證主義: positivism) 사회이론을 주조한 프랑스의 실증철학의 창도자 콩트(A. Comte: 1798~1857)의 사회학과 경제이론으로서의 애덤스미스 이후 영국경제학의 여러 체계들을 새롭게 총합(總合)하고 절충(折衷)하여서 구성한 책이다. 제1편은 생산, 제2편 분배, 제3편 교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치는 임금과 이윤과 지대(地代)의 합계라는 생산비설(生産費說)과 다름이 없다.

동명의 저서로 영국 신고전학과(新古典學派)의 창시자인 마셜(A. Marshall: 1842~1924)이 1890년에 간행하였다. 그의 수요 공급론은 마셜학설의 특색인 한계관념, 연속관념 및 국법적(國法

的)이고 수리적(數理的)인 설명을 응결(凝結)하고 있다. 근대 경제학의 완성을 기념하는 경제학의 경전(經典)으로 전 6편으로 되어 있다.

### 6) 경제학(經濟學)의 국민적체계(國民的體系) Das Nationale System der Politischen Oekonomie

독일인 리스트(F. List)의 저서로 1841년에 제1편이 간행되었고 최후의 제4편은 1845년에 발표되었다. 영국 정통학파(正統學派)의 자유방임주의(自由放任主義: laissez faire)를 반박하고, 보호무역(保護貿易: protective trade)의 필요를 역설한 책이다. 제1편은 유럽각국 경제사, 제2편은 경제이론, 제3편 학과, 제4편 경제정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 7) 경제문감

경제문감(經濟文鑑)은 조선왕조 정치 조직의 초안으로 정도전(鄭道傳)의 저서이다. 이조 태조초에 지은 《경국전(經國典)》《경제육전(經濟六典)》과 아울러 일련의 경국제세(經國濟世)를 논한 것으로서, 《삼봉집(三峰集)》에 들어 있는데, 모두 1책이다.

## 5. 경제학과 관련된 학문

### 1) 경제해부학

경제해부학(經濟解剖學: economic anatomy)은 국민소득, 국민소비, 투자(投資), 저축등의 경제 사회를 해부학적으로 분해하여 주로 현상면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그 방법에 있어서 사회경제의 내용을 각 계정과목(計定科目)으로 분류하여 연구하는 점에서 사회회계학(社會會計學: social accounting)과 같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경제적인 모든 현상을 생리학적으로 곧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을 경제중에서 산출(算出)하여 연구하는 학문이다.

### 2) 경제지리학

경제지리학(經濟地理學: economic geography)은 인문지리학의 한 부문이다. 경제현상을 지리학적 입장에서 지구표면과 자연 및 경제생활과의 관계를 분석·연구하는 학문이다. 1882년 독일의 괴츠(W. Goetz)가 이말을 처음 사용했다. 그 내용에서는 농업·수산업·공업·광업·상업·지리학으로 나눈다, 여기에는 경제지지(經濟地誌; economic topography)와 산업입지론(產業立地論: location of industry)등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다.

### 3) 경제철학

문화(文化) 철학 및 실천철학의 한 방향으로 경제를 주제로 하는 철학이 경제철학(經濟哲學: the philosophy of economy)이다. 이 학문도 넓은 의미로는 경제학의 범주에 속한다. 또한 경제철학은 경제과학, 윤리학, 역사철학, 정치철학, 법철학 등과 상호간에 깊은 관계가 있다. 경제철학은 인간의 존재 및 활동에 영향을 주며 경제생활의 본질 및 의의를 원리적으로 구명(究明)하는데 그 큰 의의가 있다. 또 국민경제를 중심으로 하여 욕망충족을 위한 재화(財貨)의 생산과 유통과의 현실적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여러원칙이 어떠한 인식론적 근거위에 성립될 수 있는가를 규명(糾明)하는 학문이다.

### 4) 경제심리학

경제심리학(經濟心理學: economic psychology)은 응용심리학(應用心理學: applied psychology)의 한 분과이다.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인간의 생활형태나 태도를 연구하는 능률심리학의 일면과 기타 모든 경제적 활동자의 심리적 요인으로서 소질이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 정신생활을 이해하며 또한 정신생활이 경제생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을 말한다.

### 5) 경제생리학

경제이론과 회계학(會計學)의 관계를 생리학과 해부학(解剖學)의 관계에 비유하여 설명한 학설이 경제생리학(經濟生理學: economic physiology)이다. 영국의 이론경제학자 히스(J. R. Hicks: 1904~1989)의 학설로, 생리학이 살아 있는 인간의 내부(內部)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는데 반하여, 해부학은 죽은 인간 즉 시체를 해부하여 연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곧 균형분석(均衡分析: equilibrium analysis: 經濟的均衡의 分析)이란 미시적 분석수단을 써서 경제상호간의 인과(因果)관계를 사전에 촉구하는 경제이론은 전자와 같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후에 나타나는 경제상호간의 수량관계를 설명하는 회계학은 후자와 같다는 비유이다. 이러한 분석방법이 나타난 것은 케인즈(J. M. Keynes)가 《일반이론》을 발표한 이후 소득·소비·투자·저축등 소위 집계개념(集計概念: aggregate concept)을 위주로 하는 소득의 분배수단이 발전하여 종래의 미시적인 가격분석과의 괴리(乖離)가 생기자 이 양(兩者)의 관계를 연결지으려는데서 생긴 것이다.

## 6. 경제관련 제문제

### 1) 경제결정론

경제가 사회발전의 유일하고 결정적인 원동력이라는 사고방식이 경제결정론(經濟決定論: economic determination)이다. 경제적 유물론(唯物論)이나 경제사관(經濟史觀)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그것은 유물사관의 속류적(俗流的) 해석으로서 이데올로기, 이론(理論)과 민족운동 등이 역사발전 선상에서 작용하는 의의를 무시하고 있다.

### 2) 경제계산론

경제계산론(經濟計算論)이란 어떤 경제형태의 변경이 요구될 때, 변경되어야 할 경제상태에 있어서 생산과 소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기능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문제되기는 사회주의가 실현될 것인가, 만약 된다면 그에 따르는 생산이나 소비등이 합리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하는 각도에서 문제가 된 후 부터이다. 미세스(L. von Mises)·베버(M. Weber: 1864~1920)·브루즈쿠스(B. D. Brutzkus)등이 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 3) 경제백서

경제백서(經濟白書:economic white paper)는 1년 동안의 국민 경제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앞으로의 동향과 그것에 대비한 경제정책의 모습을 시사하는 정부의 연차 경제보고서의 통칭이다.

백서는 원래 영국 하원(下院: the House of Commons)의 위원회로부터 제출되는 보고서의 별칭으로서 본문의 인쇄용지와 같은 백지(白紙)를 표지로 붙였기 때문에 생긴 이름인데 그 후 부터는 일반적으로 발표되는 정부의 조사보고서를 백서(白書: white paper)라 부르게 되었다.

### 4) 경제법칙

경제행위 및 경제조직에 관한 법칙을 통틀어 경제법칙(經濟法則:economic laws)이라 한다. 예를 들면 경향적 법칙과 규범적 법칙이 바로 그것이다. 장기정체(長期停滯)이론(theory of secular stagnation)과 같은 것 또는 이윤율(利潤率:profit ratio)저하의 법칙과 같은 것은 전자이고, 자원배분(資源配分:allocation of resources)의 이론같은 것은 후자이다. 경제법칙에 관하여 논란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연역(演繹)이나 귀납(歸納)이나 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이 양자의 문제는 서로 보충·보충되어야 할 문제이지 대립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최소의 수단으로 최대효과를 거두는 것을 간혹 경제법칙이라고 말하는 수가 있으나 이것은 오히려 경제원칙(經濟原則:economic principle)이라고 해야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법칙이라고 말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경험적 사실에 의한 진위(眞僞)를 토의할 수 있는 명제를 말한다.

### 5) 경제성 원리와 경제주의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경제적 원리가 경제성원리(經濟性原理)이다. 인간의 욕망이 무한한데 비하여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재화(財貨:economic goods, 경제재)는 유한(有限)한 것이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양자간에는 근본적으로 모순이 나타나며 이러한 충족되지 못한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계획하고 또한 행동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이 경제주의(經濟主義:economism) 또는 경제원칙이라 불리는 것이다.

최소 비용과 최대효과의 원칙, 또는 최소비용으로 표현되며, 즉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도록 계획하고 행동하는 이

념이 경제주의이다. 1897년부터 1903년경까지 러시아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에 나타난 온건한 사조이다. 경제주의자들은 주로혁명적 마르크스주의와 노동계급의 독자적인 정치적 요구와 프롤레타리아(proletariat) 정당 결성을 반대하였다. 이들은 노동자의 이익은 임금인상, 노동시간의 단축, 노동조건 개선등에 있으므로 경영주의와 경제투쟁만을 주장하면서 정치투쟁은 부르조아가 해야하는 것으로 정당이 노동운동의 지도적 세력이 되어서는 안되고 노동계급에 사회주의 의식을 이식(移植)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 6) 경제시계열

경제시계열(經濟時系列)이란 어떤 한 시점위에 나타난 경제현상의 계열이다. 계열이란 순서를 나타내기 위한 번호의 총합을 말하며 등차계열(等差系列)·등비계열(等比系列)등은 잘 알려진 그러한 예(例)이다. 예를 들면 제3항이  $a_n^{-1}$ 으로 표시되는 계열은 등비계열이다. 이  $n$ 이라는 번호가 시간상의 한 점일때 그 계열을 시계열(時系列:time series)이라 한다. 지난 30년간의 한국은행권 유통액은 우리 하나의 경제시계열이다. 보통 경제시계열은 추세계열·계정변동계열·경기변동계



열·불규칙적 변화계열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경제 현상의 변동을 크게 순환적(循環的)변동과 비순환적 변동으로 나눌 수 있으며, 비순환적 변동은 경제현상의 하나의 방향적(方向的) 변동으로서 그 변동하는 경향의 대세를 추세(趨勢:secular trend)라고 부른다. 더우기 순환적 변동이란 일년을 주기로 하는 계절적 변동과 협의의 순환변동인 경기변동으로 나뉜다. 후자에는 경기의 부침(浮沈:economic fluctuations)의 영향이 반영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7) 경제외적 강제

영주(領主)나 지주(地主)가 직접 생산자인 농민으로부터 조세·연공(年貢)등을 징수하는데 경제적 거래관계를 기초(基調)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영주의 외부적 권력의 강제력에 의한다는 것이다. 원래 마르크스(Marx)가 봉건적 착취관계를 특징짓는 개념으로 사용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자본의 운동법칙의 직접적인 결과가 아니고 물리적인 강제외에 심리적인 강제까지도 이에 포함시킨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 8) 경제재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경제행

위의 대상이 되는 재화가 경제재(經濟財)이다.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재화로서, 그 양(量)이 인간의 욕망에 비하여 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용이나 희생이 따르고, 그 처분이나 선택이 항상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 있어서 재화라고 하는 것은 경제재를 의미한다.

### 9) 경제조직

경제생활에 있어서 인간은 자연에 대하여 활동할 뿐만 아니라 서로 경제적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관계가 상시적(常時的)으로 결합되어 있는 현상이 있다. 보통 재화(財貨)와 서비스의 조달에 관한 사회조직을 경제조직(經濟組織)이라고 한다. 경제행위(經濟行爲:economic behavior)에는 반드시 주체가 있어서 경제단위를 이루는데, 이것들의 집합된 경제조직에 주체라는 것은 없다. 이것을 종합경제(綜合經濟:synthetic economics)라 한다. 오늘날의 경제조직은 국민경제(國民經濟:national economy)라고 불린다. 그것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이라는 정치단체를 기초로 하기 때문이다.

### 10) 경제지수

물가(物價)·생산·임금·고용등

각종 경제현상에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동태를 보통 100을 기준으로 하는 일정한 표준수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수를 경제지수(經濟指數:economic index)라 한다. 주요한 경제지수로는 물가지수·생산지수·임금지수·고용지수 등이 있다.

### 11) 경제체제

역사적으로 한정된 인류위 경제생활을 그 특질에 따라 통일적으로 파악한 체제를 경제체제(經濟體制)라 한다. 경제생활을 구성하는 요인은 경제의식·경제질서 및 기술을 통일적으로 파악한 것이 경제체제인 만큼 경제체제란 특정의 경제의식에 지배된 질서와 조직을 가지며, 특정한 기술을 구사한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이란 역사적으로 한정된 하나의 형(型)을 의미한다. 경제의식에 있어서는 욕망충족주의와 영리주의·합리주의·전체주의·개인주의, 경제질서에 있어서는 속박과 자유, 공동경제와 사경제, 귀족주의와 민주주의, 폐쇄와 개방, 공기업과 사기업이 있다. 또 기술에 있어서는 경험과 과학, 정제와 혁신, 유기적인것과 무기적인 것 등의 구별을 들 수 있다. 이 대답되는 여러가지 원리를 몇 개씩 묶어보면 의식·질서·기술에 대한 여러종류

의 원형이 나타나는데, 경제체제에 있어서도 역시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씨족공동체의 원시적 경제, 촌락경제, 노예경제, 봉건경제, 수공업적인 전기(前期)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본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체제등의 유형을 들 수 있다.

## 12) 경제통제

경제현상의 양적(量的)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통계(應用統計)의 하나가 경제통계(經濟統計:economic statistics)이다. 경제현상의 복잡성에 따라서 농업·공업·상업·금융·재정 등 각 분야의 활동상황을 나타낸다. 노동·실업·임금·직업 소개(職業紹介)에 관한 통계와 같은 고용관계인 것과 경기(景氣)·물가·인구·금융재정·국민경제에 대한 통계와 같이 총괄적인 것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 13) 경제통제법

국민의 경제생활을 국가의 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규제하려는 입법의 총칭이 경제통제법(經濟統制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에 대응하여 일어났으며 국민경제의 올바른 육성과 조절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무역법·외자도입촉진법·외자관리법·농지개혁법 등 그예가 많이 있다.

## 14) 경제투쟁

경제투쟁(經濟鬭爭:economic strife)은 노동자·농민이론가·지주에 대하여 경제적 이해(利害) 때문에 생기는 투쟁이다. 노동조건·고용관계·생활조건 등 노동자의 일상적·직업적·기초적 욕구를 근본으로 한 노동운동의 출발점으로 이것은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고항구적(恒久的)인 임무이다.

## 15) 경제표

중농주의(重農主義)의 시조인 프랑스의 경제학자이며 의사인 케네(F. Quesnay:1694~1774)가 1758년에 발표한, 자본의 재생산과정을 의미하는 경제순환을 나타내는 도표가 경제표(經濟表)이다. 농업만이 잉여가치를 생산한다는 입장에서 농업생산자인 생산계급, 상공업자인 비생산계급과 지주계급의 세계급으로 나누었다. 이들 세계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프랑스 혁명직전의 경제적 곤궁과 인구문제의 해결을 시도한 것이다. 경제순환에 관한 천재적 착상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 16) 경제형법

경제형법(經濟刑法)은 경제생활을 규제하기 위한 모든 법을 총칭한다. 법 규범을 형벌로써

담보하게 하도록 제정된 각종 형벌 법규를 통털어 이른다. 전가벌(轉嫁罰), 양벌규정(兩罰規定)·책임의 추정등이 있다.

## 17) 경제형태

인간에게 부여된 경제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경제의 형태를 경제형태(經濟形態)라고 한다.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자기의 활동의 대부분을 바쳐야 한다. 우리인간에게는 욕망이 무한하게 있는 반면에 물자는 이와 반대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물자의 결핍을 느끼게 되고 따라서 인간은 끊임없이 물자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것은 바로 우리인간에게 부과된 근본적 과제로서 이러한 근본과제는 어느 시대 또는 어느 국민에 있어서든지 같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다름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해결되고 있다. 경제라는 것이 영원히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본과제일 뿐이고 그 과제가 어떻게 해결되는냐 하는 것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와 같이 구성되는 여러가지 경제의 형태가 바로 경제형태인 것이다.